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TV·가전 부품라인 신설

이르면 연말까지 근로자 150여명 투입
프리미엄 종합가전 전진기지 육성 주목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TV 부품 및 생활가전 공용부품 생산라인이 신설된다. 최대 15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이 라인에 삼성이 최근 개발한 새로운 표면처리 기술이 도입된 부품 전용 생산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TV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제품에 들어가는 새 부품 생산라인을 도입, 가동에 들어간다. 최대 150여명이 투입될 새 라인은 최근 축소된 청소기 생산 라인의 빈 자리에 신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주력생산품인 냉장고·세탁기·에어컨·김치냉장고 생산 라인 외에 공용 부품라인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광주에서 TV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최근 신입 고졸 생산직 채용에 나섰으며 100여명 규모의 인력을 신규 채용, 새로운 부품 라인 등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사업장에 새 부품라인이 신설되는 것은 광주사업장의 안정된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조립 및 품질 안정화 기술이 가장 뛰어나 제품의 해외공장 출시에 앞서 시생산을 하는 프리미엄 제조 기술 허브 기지로 인정받고 있다. 광주사업장의 규모가 커, 라인 신설에 부담이 없는 점도 작용했다.

TV를 포함, 삼성전자의 주력 생활가전 제품에 쓰이는 공용부품 라인인

신설되면서 광주사업장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종합가전생산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광주지역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삼성전자의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가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을 받은데다 중국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 제공하던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해외 공장의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며 “삼성이 글로벌 가전시장 1·2위를 다투는 만큼 조립 및 생산 기술력이 안정된 국내 공장에서 최첨단 제품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본사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 비어있는 청소기 라인 자리를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새 라인이 들어선다면 신규 인력 채용 등 지역 경제에도 보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추위가 빛은 무등산 상고대

때 이른 겨울 추위를 보인 12일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부근에 수증기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은 '상고대'가 피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한 등산객이 겨울 풍경이 신기한 듯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수강권’ 22억원 死藏

〈사상〉

광주교육청·학교 무관심에 작년 83% 그쳐
프로그램 운영 주체 제한 학생 선택폭 좁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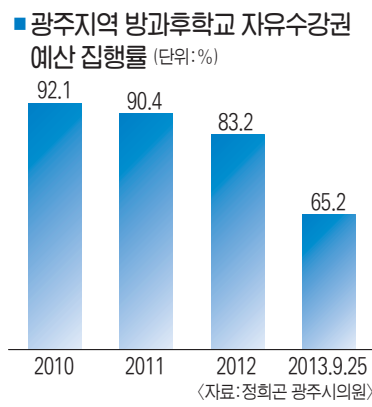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이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예산 수 십억원이 사장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광주 북구)은 12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이 대상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예산 집행율이 83.2%에 그쳐 22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2010년 63억9000만원, 2011년 55억7000만원, 2012년 124억7000만원을 편성해 일선 학교에 교부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각각 92.1%, 90.4%, 83.2%만 집행하고 32억7821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는 목적사업비여서 미집행 예산 32억원이 고스란히 사장된 셈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해마다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10년 92.1%에 달하던 집



행율은 2011년 90.4%, 지난해 83.2%로 2년 사이에 8.9%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25일까지 집행율이 63%에 그쳤다.

특히 방과후 활동 참여가 활발해야 할 초등학교의 집행율이 가장 저조한 것도 문제다.

이는 방과후학교의 특성상 학교당 국과 담임교사가 방관한데다 개설 프

로그램도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광주시교육청이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만큼 학생들의 선택 폭을 좁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S초등학교는 4085만 원을 교부받아 48.6%인 1985만원만 집행했다. H초등학교도 53.1%만 집행하고 3782만원을 남겼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교과 수업과 연계돼 있어 상대적으로 집행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희곤 의원은 “학교마다 집행율이 100%에서 50% 이하로 천차만별이다. 대상 학생들이 지원받는 것을 꺼린다는 교육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확보한 예산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의지 부족이다”고 질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림수산기술평가원도 나주 온다

근무인력 74명, 50억 들여 신사옥 곧 착공...이전기관 16개로 늘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분리된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이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도시)로 이전하기로 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빛가람도시 이전 기관은 기존의 15개에서 16개로 늘게 된다.

14일 전남도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분리를 승인했고, 빛가

람도시에 신사옥을 건립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평은 50억원을 들여 빛가람도시에 2795㎡ 규모의 신사옥을 짓게 되며, 근무 인원은 74명이다.

또 빛가람혁신도시로 오는 한전과 한전KDN,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 15개 기관에 이어 농기평도 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16개로 늘어났다.

여수에 자리잡은 해양경찰학교를 포함하면 이 지역 혁신도시에는 모두 17개 기관이 이주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이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돼 전남개발공사와 나주 신사옥 부지 매입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상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피부

셀-바이오™ 과학으로 매일매일 맑고 매끄럽게- 헤라 셀 에센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를 놓칠 수 없다면 헤라 셀 에센스를 시작해보세요. 헤라는 셀-바이오™ 과학을 통해 피부 활성화의 핵심, 생체수를 모사한 셀-바이오 플루이드 싱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생체수의 다섯 가지 비밀코드(아미노산, 이노산, 리피드, 수지, 펩타이드)를 연구한 헤라 셀 에센스- 놀라운 피부변화를 느껴보세요*

*1일 사용 후 사용자의 98%가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96%가 피부가 밝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Cell-Bio™ 피부 동화 포몰라
일본 화장품학의, 근원적인 셀 연구를 통해 피부의 오사른 생분을 모사, 피부에 빠르게 동화되어 획기적인 피부변화를 선사합니다

CELL ESSENCE
Cell-Bio Fluid Sync™
150 ml / 30 Days
Amount per use : 2.5 ml.

Code	Effect
Am. Acid	Exfoliating
Peptide	Moisturizing
Super Lipid	Replenishing
Am. Acid	Regulating
Peptide	Energy
Super Lipid	Transparency

HERA

*유명백화점이나 이모와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

* 사용 직후 피부가 촉촉해지고 / 밝아지고 / 균일해지는 효과-2535 생인체성 인체적용 실험결과 (총 21명, 2013.5.29~6.20 (내외피부과))
** 1일 사용 후 피부가 매끄러워지고/밝아지는 효과-2847 생인체성 5~9인 인체적용 실험결과 (총 60명, 2013.7.15~7.28 OHA KOREA)